

7 **광주일보**
제17546호 2006년 9월 7일 목요일

서채원 광주시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서채원(45)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 직원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며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형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1998년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를 위반한 점, 식사비용을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광주시의회 부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광주시 서구 삼촌동 모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의회 직원들에게 5·31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하고 식대 15만원을 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이 무효되며,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카드깡' 동구청 직원 4명 약식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는 7일 구청 법인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만들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예산외출입금법 위반)로 조모(49)씨 등 광주 동구청장 전·현직 비서실장 4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8차례에 걸쳐 광주 동구청 인근 음식점 등에서 구청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해 현금 2천100만원을 조성해 격려비 등으로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연루의혹을 받았던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고 '카드깡' 금액이 1개월 평균 50만원 가량의 적은 액수인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인오락기 불법 개조·유통 10명 검거

광주 북부경찰청은 6일 성인 오락기에 불법 개조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W업체 대표 박모(46·인천시)씨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공장에서 영동위 심의를 통과한 성인용 오락기 '새 이야기'(the bird story), '아틀란티스' '더 칸' 등에 연타·에시·스톱조작기능을 추가로 삽입, 서울·경기·부산 등 100여 곳의 가맹점에 4천400여 대를 팔아 총 17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학교 기자재 납품비리 수사 확대

9개업체 "S中에 리베이트 제공" 시인 전남경찰, 다른 신설학교 비리도 적발

광주S중 기자재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다른 신설학교로 확대되고 있다. S중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한 업체들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되고, 또 다른 신설 학교에도 리베이트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가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의회도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구성키로 했다.

◇수사 확대=6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S중

학교에 컴퓨터 등 학교 기자재를 납품한 11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 중 일부 업체가 학교 측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까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털어놓은 업체는 9개로, 이들은 계약금의 10~15%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규모는 애초 알려진 대로 업체당 100만 원~700만 원대. 경찰 관계자는 "업체에서 압수한 컴

퓨터 분체 및 계약서류·법인 통장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업체 대표들이 리베이트 제공 사실 부문을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일부 업체가 S중학교 이외에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W중학교를 포함, 1~2개 학교에 추가로 1천5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점을 밝혀내고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광주 시내 최근 신설된 학교에 비품을 납품한 업체와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납품거래 관련 사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납품비리 조사위 구성=광주시의회가 신설학교 기자재·비품 납

품 비리의혹과 관련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성숙 교육사회위원장은 이날 "신설 학교 납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리예방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9월 정회기 내에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반적인 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구조적인 납품 비리의혹을 파헤치기 어려워 조사위원회를 불가피하다"며 "다른 상임위 의원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지, 교육사회위원회 내에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지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광역시장기 어르신 건강 체육대회

6일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광주광역시장기 어르신 건강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공 던지기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광주 시내 60세 이상 노인 3천여명이 참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원침 (6920) 김장독



연제동림회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 353부지
문의 (062)366-4220

비자금 의혹 시교육청 직원 '죄천'

광주시교육청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예산담당 A사무관을 학생교육원으로 좌천 시켰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가해자 이씨

"선거 승복안해 분개"

전경태 전 구례군수에게 흥기를 휘두른 뒤 자해(自害)한 이모(57·구례군 구례읍)씨는 6일 남원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 본보 기자와 직접 인터뷰를 했다.

이씨는 "전 군수가 최근 서기동 현 군수의 불법선거 운동 관련 자료를 수집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군민(郡民)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이에 승복하지 않고, 보복선거를 노리는 전 군수를 그냥 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경태 전 구례군수 테러 왜?

이씨는 또 "지난 5·31선거 때 서군수 캠프에 2~3번 찾아갔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서군수의 선거운동을 돕지는 않았고, 다만 전 군수가 3선에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어렸을 적부터 존경하고 따랐던 전 군수가 재직시절 각종 측근인사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면서 "진즉부터 전 군수를 살해할 생각을 품고 있었을 뿐 사주를 받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피해자 가족

"사주받고 한 짓 같다"

그는 "이미 고향에서는 이씨가 문제 인물로 찍혀 가깝게 지내는 것을 기피해 왔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앞서 지난 5월 이씨가 휘두른 흥기에 황경막을 다쳐 6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전 군수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의식을 되찾긴 했으나, 정상적인 의사 소통을 할 수 없어 동생인 종태씨가 대신 취재에 응했다. 전 군수는 6일 오후 2시께 전남대병원 원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서이 후회기 없습니다.

비도끼

신승정기, 신승정기, 신승정기, 신승정기, 신승정기

한아상공 (062) 433-3400

신승정기, 신승정기, 신승정기, 신승정기, 신승정기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DOE 신우 환기유니트